

KLPGA 임원(이사) 입후보 출마 포부서

지혜롭게 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일꾼이 되겠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? 이사에 입후보한 김순희입니다.

어느덧 협회의 일꾼으로 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.

저는 4년 동안 회장님 이하 이사님들과 함께 대통령상 수상과 중계권계약
사옥 매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함께 성공시키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왔습니다.

그 중 가장 기억 남는 건 코로나 팬데믹 시절 철저한 방역으로 세계 최초로 투어를 성공적으로
개최한 일입니다.

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협회가 K방역을 선도했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줬고
해외 협회에서 메뉴얼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.

저는 4년 동안 투어대회 .파트너십 사업과 협회 내외부행사 등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
있도록 일을 해왔습니다.

과거보다 협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업무량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

선후배님들께서 협회 위상을 높여 놓은 만큼 그 위상이 오래 지속 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협회가
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.

협회는 학교가 아닙니다.

배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.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.

협회는 협회 타이틀로 폼만 재는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.

저는 4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소한 업무부터 큰 결정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.

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

저는 앞으로도 선수로서가 아니라 행정가로서 투어발전과 투자를 은퇴한 회원들의 가치를 높이는
일에 더욱 매진 할 것입니다.

협회의 미래를 위해 협회의 꿈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년 02월 28일

성 명 : 김 순희



KLPGA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